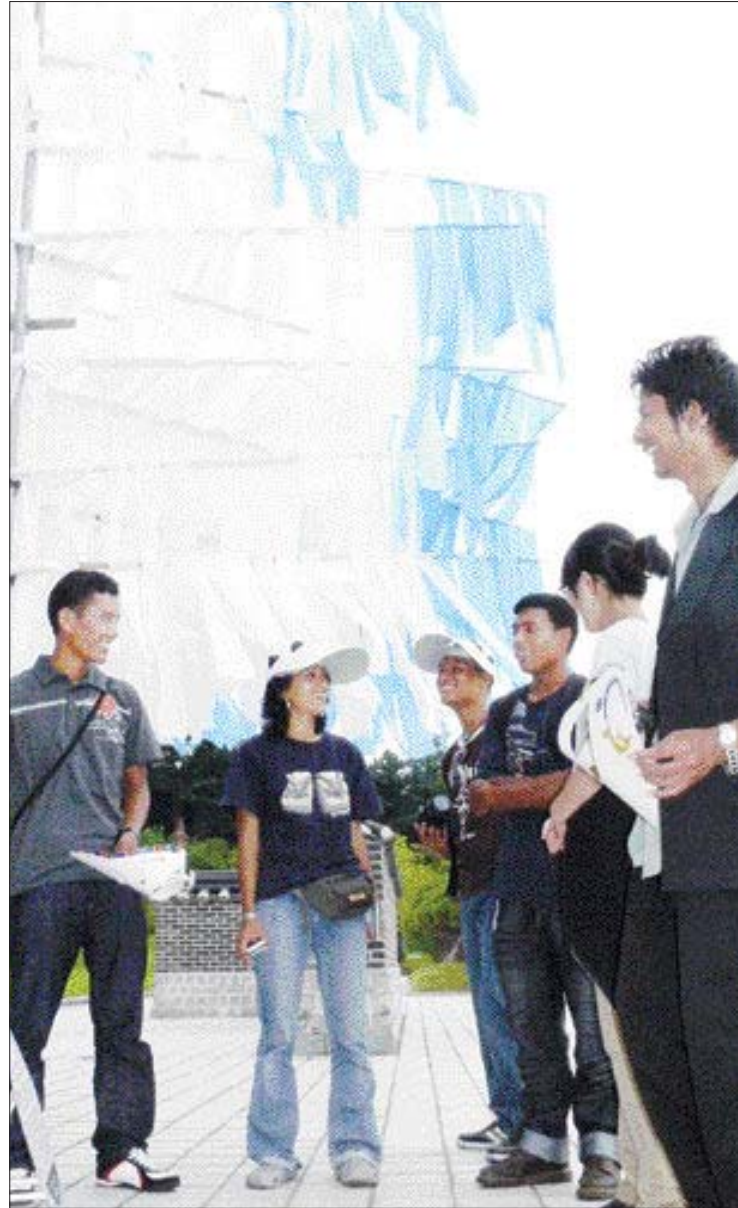


“5·18 묘지 만장 그림으로 꼭 표현하고 싶어”

■ ‘네팔 NGO 품’ 예술가 6명 광주 방문

‘광주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왔어요.’
지난 22일 오후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특별한 손님’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이하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을 방문했다.

물두하고 명상수련을 하는 한국불교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네팔 엔지오(NGO) 품’은 한국에서 청소년문화운동을 17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한국 NGO로는 처음으로 네팔에 만든 NGO 단체다.



지난 22일 오후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네팔의 ‘품’ 소속 예술가들이 ‘2008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작품인 ‘바람의 시(詩)-거대한 부표’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권도시 광주 문화 직접 체험

백양사서 선불교 명상 수련도

에서 열린 ‘아카이브전시회’도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민으로서의 손님’이라는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 사진과 영상작품, 프로젝트 진행 결과물인 마을지도, 직접 그린 회화 작품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네팔의 일상을 보여줄 생각이다.

흥부네 박보러 가세

화순 다산미술관 30일~9월 30일 ‘박축제’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조롱박을 소재로 한 이색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 남면 다산리에 있는 다산미술관(관장 이관석)은 오는 30일~9월30일까지 ‘제2회 흥부네 박축제’를 연다.



이형모 작 ‘해탈’

다산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늦여름 밤 새하얀 꽃잎을 터뜨리는 박꽃을 감상하며, 시각디자인 전시회와 시낭송회 등의 문화행사를 즐기는 자리이다.
또 마을 주민들이 가꾸 놓은 꽃길을 한가롭게 걸을 수 있고, 주민이 직접 만든 박 국수, 박 동동주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산미술관에서는 ‘광주·전남 시각디자인 교수 초대전’이 열린다.

남농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장진숙씨 대상

목포시와 남농미술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장진숙(여·전북 군산)씨가 대상을 받았다.



장진숙 작 ‘자연-생성’

이번 미술대전에는 1회 대회 657점보다 훨씬 많은 1천144점의 작품이 출품돼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문인화, 서예 등 분야로 나눠 수상작을 뽑았다.
최우수상에는 한국화 부문 이득선, 수채화 부문 김옥, 문인화 부문 진현미, 서예 부문 김미향씨가 선정됐다.

故 이청준 선생 삶·문학세계 재조명 활발

월·계간 문예지 특집 지면 할애

고인의 추모 글·그림 등 수록

지난달 세상을 뜬 ‘당신들의 천국’의 소설가 고(故) 이청준(사진)선생을 기리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월·계간 문예지들은 잇따라 특집 지면을 할애해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재조명했다.



이 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피하고자 한 말의 장인’이라며 “그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에 드러내는 말을 찾아 소설을 쓴 보기 드문 지식적 작가”라고 회고했다.
김영남 시인은 술을 마시면 ‘씩을 놔’이라는 애정 어린 말을 자주 쓰던 고향 선배 이청준을 ‘인정 많고 자상한 이웃 동네 아저씨’였고 ‘최고의 미식가’였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엄격했던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은 김선두 화백도 생전 고인과의 짧은 인연과 추억을 소개하며 “선생과 젊었을 때 인연을 맺은 것은 그림쟁이로서의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대문학’ 이번 호에는 김선두, 장찬홍 화백의 추모 그림과 영결식에서 감광규 시인이 낭독한 조시와 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민택영 한양대 명예교수의 추모사도 수록됐다.

가을학기 다도반 모집

예지원 광주시지부

(사)예지원 광주시지부(원장 이영애)가 2008 가을학기 다도반 회원을 모집한다.
수업은 오는 9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누문동 예지원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생활예절’ ‘우리 옷 바로 입기’ ‘인사의 종류와 하는 법’ ‘차생활의 입문’ ‘생활다례 이론과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회원은 오는 9월8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Movie banner for 'Happy Time 영화안내' with various film titles and logos.

A grid of movie advertisements for various theaters including Mega Box, Enter Cinema, Columbia Cinema, Senns Cinema, Hami Cinema, and Jeil Cinema, listing film titles and showtimes.